

천태의 번뇌 대치(對治)의 특색

이병욱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천태지의(天台智顗)가 제시한 '번뇌에 대한 관점'과 '번뇌 대치(對治)'에 대해 검토한 글이다. 2장에서는 번뇌의 종류,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과 인연을 살펴본다. 천태지의는 『마하지관』에서 2가지의 번뇌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4분(四分)의 번뇌인데, 이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3독과 이 3가지가 균등하게 섞인 것(覺觀)이다. 다른 하나는 견사(見思), 진사(塵沙), 무명(無明)이다. 이 3가지 번뇌는 차제삼관(次第三觀)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제거된다. 견사의 번뇌는 공관(空觀)에서 제거되며, 진사의 번뇌는 가관(假觀)에서, 무명은 중관(中觀)에서 제거된다. 이는 천태지의의 번뇌에 관한 관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천태지의는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4가지를 거론하고, '번뇌가 일어나는 인연'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소승과 대승, 천태종에서의 '번뇌를 넘어서는 길'에 대해서 서술한다. 소승에서는 번뇌를 다스릴 때 공(空)이라고 보지 못하지만, 대승에서는 공(空)이라고 관조해서 번뇌를 다스린다. 이 점이 소승과 대승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천태종에서는 대승의 관점을 더욱 확장해서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십승관법(十乘觀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십승관법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인 관불사의경(觀不思議境)만을 따로 떼어서 분석한다. 여기서는 번뇌 대치(對治)의 방법으로서 무애도(無礙道)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탐욕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자재한 것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수행자는 탐욕이 청정해서 공(空)이라고 보아 생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탐욕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때에는 탐욕의 정체를 잘 알아서

중생을 구제하고 그 결과 생사에서 벗어난다.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애도’이고, 이것이 천태지의가 번뇌를 대치할 때의 특색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십승관법(十乘觀法), 무애도(無礙道), 차제삼관(次第三觀), 견사(見思), 진사(塵沙), 무명(無明).

1. 서론

천태종의 사상은 교판론(敎判論)과 지관(止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천태종의 교판론은 5시8교이고, 지관은 3가지로 구분된다. 그것은 점차지관, 부정지관, 원돈지관이다. 점차지관(漸次止觀)은 단계적으로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고, 부정지관(不定止觀)은 일정한 단계를 밟아다가 중간에 비약하는 것이고, 원돈지관(圓頓止觀)이 천태종에서 강조하는 지관이다. 원돈지관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25방편, 4종류 삼매, 실상론, 십경십승관법이다. 25방편은 원돈지관에 들어가기 전의 준비과정이라고 알려졌으며, 4종류 삼매는 삼매를 외적인 형식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십경십승관법은 실상론(實相論)을 포함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구체적 수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십경십승관법에서 십경(十境)은 지관의 대상이 되는 10가지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 십승관법은 지관을 닦는 사람이 행하는 10단계의 방법이다. ‘십경’이 제시된 이유는 지관을 닦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관을 닦다가 번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지관을 닦다가 병이 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 지관을 닦다가 마(魔)의 유혹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 ‘십경’이

다.

그러면 ‘십경’의 내용을 알아본다. 첫째, 음계입경(陰界入境)은 일상에서 접하는 대상세계이다. ‘음’은 5음(五陰)이고, ‘계’는 18계(十八界)이며, ‘입’은 12입(十二入)이다. 이는 초기불교에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번뇌경(煩惱境)은 수행을 하다가 번뇌가 발생할 때는 번뇌를 지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셋째, 병환경(病患境)은 수행을 하다가 병환이 생기면 이때는 병환이 지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넷째, 업상경(業相境)은 자신의 지은 업(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계가 나타나면 이때는 그것을 지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다섯째, 마사경(魔事境)은 수행자가 마(魔)의 유혹을 만나면 이제는 마(魔)의 유혹이 지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섯째, 선정경(禪定境)은 선정에 들어갔지만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 또한 병폐가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선정의 경계가 지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곱째, 제견경(諸見境)은 수행자가 선정에 들어가서 어떤 경지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집착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므로 이번에는 자신의 견해를 지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여덟째, 증상만경(增上慢境)은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수행자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증상만이 지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홉째, 이승경(二乘境)은 수행자가 이승의 경지를 체득했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이것도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므로 이번에는 이승의 경지를 지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열째, 보살경(菩薩境)은 수행자가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자비로 인해서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보살의 경지가 지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십경 가운데 둘째 항목인 ‘번뇌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번뇌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가 번뇌와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보았으며, 번뇌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번뇌경에 관련된 내용은 기존의 천태연구서에

서 조금씩은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번뇌경에 대해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한 연구서¹⁾에서도 명확하게 강조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그것은 천태지의가 번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무애도(無礙道)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도 바로 천태지의가 제시한 ‘무애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글의 전개과정에 대해 말하자면, 2장에서는 번뇌의 종류,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과 인연에 대해 서술하고, 3장에서는 번뇌경에 소개된 번뇌를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4장에서는 번뇌를 넘어서는 방법 가운데 ‘무애도’만을 따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3장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특별하게 부여해서 하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천태지의가 제시한 ‘번뇌를 넘어서는 길’은 ‘십승관법’이고, 이는 다른 종파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천태지의의 독자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십승관법’은 십경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번뇌경에서 제시된 ‘무애도’를 천태의 번뇌에 관한 관법(觀法)에서 주요한 특색으로 삼았다.

II. 번뇌의 종류와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과 인연

2장의 내용은 3단락으로 전개된다. 우선 번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번뇌가 일어나는 인연에 대해 검토한다.

1) 大野榮人 著, 『天台止觀成立史の研究』(京都: 法藏館, 平成6년) p.433-462에서는 번뇌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논문과 차이점은 강조점의 여부에 있다; 해명, 『마하지관의 이론과 실천』(경서원, 2007년) pp.374-383.

1. 번뇌의 종류

『마하지관』의 번뇌경을 말하는 대목에서는 번뇌의 종류로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을 제시하고, 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섞은 것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로 번뇌를 구분한다.²⁾ 이것은 이승(二乘)의 사람이 끊을 수 있는 통(通)번뇌와 이승의 사람이 끊을 수 없는 별(別)번뇌로 다시 구분된다.

만약 이 예리한 것[利]과 둔한 것[鈍]을 열면 팔만 사천 종류가 된다. 지금 다만 묶어서 4종류로 구분한다. 삼독(三毒)이 치우쳐 일어나는 것이 세 가지 구분이 되고, 만약 세 가지 경계를 균등하게 인연하는 것을 등분(等分)이라 이름한다. 삼독이 치우쳐 일어나면 각관(覺觀)에서는 많은 것이 아니다. 삼독이 균등하게 일어나는 것을 각관이 많다고 이름한다. [각관이] 적거나 많거나 간에 모두 산동(散動)이라고 이름하는데, 모두 선정을 장애한다.³⁾

다시 예리한 것[利]과 둔한 것[鈍]을 합해서 각각 [通번뇌와 別번뇌의] 사분(四分)으로 구분한다. 계내(界內)의 번뇌에 속하는 것은 이승의 사람도 함께 끊을 수 있으니 통(通)번뇌라고 이름한다. 만약 계외(界外)의 사분(四分)번뇌라면 이승의 사람이 끊을 수 없으니 별(別)번뇌라고 이름한다.⁴⁾

2) 安藤俊雄 著, 『天台學』(京都: 平樂寺書店, 1969년 2쇄) p.222에서는 “우선 번뇌의 모습은 8만4천의 모습이 있지만 견사이둔(見思利鈍)의 4종류로 구분하면 충분하다.”라고 한다.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이 주장은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2a) “卽是見思利鈍”을 근거한 것인데, 이 대목은 “곧 견사(見思)의 예리한 것과 둔한 것이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러한 安藤俊雄의 주장은 혜명, 『마하지관의 이론과 실천』(경서원, 2007년) p.378에서도 나타난다.

3)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2b) “若開此利鈍爲八萬四千 今但束爲四分 三毒偏發爲三分 若等緣三境名等分 三毒偏起是覺觀而非多 三毒等起名覺觀多 若少若多 悉名散動俱能障定.”

또한 『마하지관』의 번뇌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번뇌의 종류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번뇌를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관문을 수행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번뇌의 모습은 많아서 다 소개할 수 없다. 만약 [번뇌의 모습을] 자세히 분별한다면 관문(觀門)에 방해가 될 것이다. 『법화경』에서 말하기를 “20년 동안 항상 분(糞)을 치우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분(糞)은 번뇌의 더러운 존재다. [이를] 버려서 다한다면 하루의 가치를 얻을 것이다. 만약 많고 적은 것을 분별하는 것에 머문다면 끝내 바른 도(直)를 얻을 수 없다. 지금 번뇌의 분(糞)을 관조해서 지혜의 돈(錢)을 구하는데 견사(見思)의 모습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⁵⁾

한편, 『마하지관』의 다른 대목에서는 번뇌를 견사(見思), 진사(塵沙), 무명(無明)으로 구분한다.⁶⁾ 이 세 가지 번뇌는 차제삼관(次第三觀)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제거된다. 종가입공관에서는 견사의 번뇌를 제거하고,⁷⁾ 종공입가관에서는 진사의 번뇌를 제거하며,⁸⁾ 중도제일

4)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2b-c) “復次利鈍合 各束爲四分 同是界內 共二乘斷名通煩惱也 若界外四分 二乘不斷 名別煩惱.”

5)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2b) “但煩惱之相廣不可盡 若具分別 妨於觀門 法華云 二十年中常令除糞 糞即煩惱污穢法也 棄之若盡得一日之價 若住分別多少終不得直 今觀煩惱糞求智慧錢 非欲分別見思相也.”

6) 『마하지관』 3권상 (『大正藏』 46권, 23c) “報由三種煩惱 謂取相塵沙無明也.” 보(報)는 세 종류의 번뇌로 말미암는다. 말하자면 상(相)을 취하는 것, 진사(塵沙), 무명(無明)이다. (相을 취하는 것이 見思의 번뇌라고 新田雅章, 『天台實相論の研究』, p448에서는 해석한다.) 그리고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4c)에서 견사(見思), 진사(塵沙), 무명(無明)의 이름이 보인다.

7) 『마하지관』 3권상 (『大正藏』 46권, 30a) “觀藥即知病 故此惑爲入空止觀所攝也.” 약(藥)을 관조하는 것이 병을 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번뇌는 종가입공관에 포함된다. (그런데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번뇌가 견사의 번뇌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8) 『마하지관』 3권상 (『大正藏』 46권, 30a-b) “若於彼習觀時 必須次第歷劫 修行學恒沙佛法 先破塵沙 塵沙雖不潤生 能障化道故須前斷 斷此惑者 止是調心方便 伏界外惑

의관에서는 무명의 번뇌를 제거한다.⁹⁾

견사(見思)의 번뇌는 유(有)에 대한 집착인데, 이는 현상 세계는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존재하다고 집착하는 것이고, 한 마디로 말하자면 상(相)을 취하는 것[取相]이다. 견혹(見惑: 견해의 번뇌)은 진실의 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현혹되어 생기는 번뇌이다. 사혹(思惑)은 세상의 사물을 사려해서 생기는 집착이다. 진사(塵沙)의 번뇌는 공무(空無)에 빠져서 티끌이나 모래처럼 한량없이 펼쳐지는 현실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을 잃어버려서 교화활동을 바랄 수 없게 하는 장애이다. 무명의 번뇌는 지(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기는 번뇌인데, 이는 가장 엄밀한 의미의 지(知)의 장애, 무지(無

進斷三三相應獨頭 枝本皆去 故知假觀正攝得塵沙 亦攝得無明。”

만약 저 사람이 관(觀)을 익힐 때라면, 반드시 순서대로 겁(劫)을 두루해서 수행하여 항하수 모래숫자와 같은 불법을 배워야 한다. 먼저 진사(塵沙)를 깨뜨린다. 비록 진사는 생(生)을 돕는 것은 아니지만 교화하는 도(道)를 장애하기 때문에 먼저 끊어야 한다. 이 번뇌를 끊는다면 지(止)가 마음을 조절하는 방편이다. 계외(界外)의 번뇌(無明을 의미함)를 누르고, 나아가 삼도(번뇌, 업, 고통)의 상응하는 번뇌(見思의 여러 번뇌와 상응하는 것)와 독두(獨頭: 見思의 여러 번뇌와 상응하지 않는 것)의 번뇌를 끊어서 근본과 지말이 모두 제거된다. 그러므로 알아라. 가관(假觀)은 진사를 포섭하고 또한 무명도 포섭한다. (여기서 무명을 포섭한다는 것은 무명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명을 눌러둔다는 것이다.)

- 9) 『마하지관』 3권상 (『大正藏』 46권, 30b) “但修中觀 治彼三三 從於初地乃至後地 地地中皆有有三道 地地無明分分滅 業滅苦滅 地地相應去時獨頭亦去 地地雖有智智與無明雜 雜故亦得呼爲智障 障上分智故 唯佛心中無無明則煩惱道盡 煩惱道盡故業盡 業盡故苦盡 三三究竟唯在如來 是故中觀攝得界外惑也。”

다만 중관(中觀)을 닦아서 저 삼도(번뇌, 업, 고통)를 대치한다. 초지(初地)부터 내지 뒤의 지위[後地]까지 지위와 지위에서 모두 삼도가 있고, 지위와 지위에서 무명(無明)이 부분과 부분이 없어지며, 업(業)이 멸하므로 고통(苦)도 멸한다. 지위와 지위에서 상응하는 번뇌가 사라질 때 독두(獨頭)의 번뇌도 사라진다. 비록 지위와 지위에 지혜가 있지만, 지혜는 무명과 섞여있다. [지혜와 무명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의 장애[智障]라고 부를 수 있으니 윗 단계의 지혜[上分智]를 장애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의 마음 가운데 무명이 없으면 번뇌의 길[道]도 다한다. 번뇌의 길[道]이 다하기 때문에 업(業)도 다하고 업이 다하기 때문에 고통(苦)도 다한다. 삼도의 구경에는 오직 여래에만 있다. 이러한 까닭에 중관(中觀)으로 계외(界外)의 번뇌를 포섭한다.

知)를 말하는 것이다.¹⁰⁾

2. 번뇌가 일어나는 4가지 모습

『마하지관』의 번뇌경에서는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 4가지로 설명한다. 우선 번뇌를 예리한 것[利]과 깊은 것[深]으로 구분하고, 이 2가지를 조합해서 4가지를 만든다. 첫째 번뇌가 깊지만 예리하지 않은 것이고, 둘째 번뇌가 예리하지만 깊지 않은 것이며, 셋째 번뇌가 깊으면서도 예리한 것이고, 넷째 번뇌가 깊지도 않고 예리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 네 번째 번뇌가 깊지도 않고 예리하지도 않은 것은 평상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은 뒤의 네 번째를 제외한 3가지를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에는 4가지가 있다. [번뇌가] 깊지만 예리하지 않은 것, [번뇌가] 예리하지만 깊지 않은 것, [번뇌가] 깊으면서도 예리한 것, [번뇌가] 깊지도 않고 예리하지도 않은 것이다. 여기서 4번째의 것은 통상적인 과보(果報)의 미혹한 모습에 속하는 것이어서 평범한 모습[尋常]과 서로 관련된다. 그러므로 깊은 것도 아니고 예리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앞의 3가지에서 말하는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은 평상의 모습[常]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에 속하는 것이다.¹¹⁾

10) 田村芳朗, 新田雅章 著, 출판부 역, 『천태대사 - 그 생애와 사상-』(영산법화사 출판부, 1997년) pp.136-140; 新田雅章, 『天台實相論の研究』(京都: 平樂寺書店, 소화 56년) pp.447-458.

11)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2c) “起相有四 深而不利 利而不深 亦深亦利 不深不利 第四句 卽屬通途 果報惑相 尋常相係 故言非深非利也 三句起動異常 卽屬煩惱發相也.”

앞에서 말한 것 가운데 번뇌가 깊으면서도 예리한 것에 대해 알아본다. 번뇌가 깊은 모습은 번뇌가 일어날 때 두터워서 금지시킬 수 없고 경계를 접촉할수록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번뇌가 예리한 모습은 번뇌가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나면 깊어지고 두터워지는 것이다. 천태지의는 번뇌가 깊으면서도 예리한 것을 설명하고,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는 앞의 내용에 미루어 파악하라고 말하고 있다.¹²⁾

3. 번뇌가 일어나는 3가지 인연

『마하지관』의 번뇌경에서는 번뇌가 일어나는 인연으로 3가지를 거론한다. 그것은 습인종자(習因種子: 同類因의 종자), 업(業)의 힘에 의한 것, 마(魔)의 선동이다.¹³⁾ 이를 불꽃이 타오르는 것에 비유하면, 불을 일으키는 것은 ‘습인종자’에 해당하고, 불에다 바람이 불게 하는 것은 ‘업의 힘에 의한 것’에 속하며, 불에다 기름을 뿌리는 것은 ‘마의 선동’에 해당하는 것이다.¹⁴⁾

그러면 번뇌를 일으키는 3가지 인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2)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2c) “發時深重不可禁止 觸境彌增 無能遮制 是爲深相 數數發起 起輒深重 故名爲利 利而不深 深而不利 準此可知.”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이] 깊고 두터워서 금지시킬 수 없으며 경계를 접촉할수록 더욱 늘어나서 [번뇌를] 막을 수 없다. 이것이 [번뇌가] 깊은 모습[深相]이다. [번뇌가] 자주 자주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면 문득 깊어지고 두터워진다. 그러므로 이것을 [번뇌가] 예리한 것[利]이라 이름한다. [번뇌가] 예리하면서 깊지 않은 것, [번뇌가] 깊으면서 예리하지 않은 것은 이것(앞의 설명)을 준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13)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2c) “因緣者 一習因種子 二業力擊作 三魔所扇動” 번뇌가 일어나는 인연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습인종자(習因種子)이고, 둘째 업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셋째 마(魔)의 선동에 의한 것이다.

14)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2c) “若就火爲譬者 抖擻如習 風扇如業 膏投如魔” 만약 불을 비유로 한다면 두수(抖擻: 불을 일으키는 것)는 습(習)과 같고, 풍선(風扇: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은 업(業)과 같으며, 기름을 던지는 것은 마(魔)와 같다.

첫째, 습인종자는 오랜 세월 동안 번뇌가 쌓여서 그것이 종자(種子)가 되고 이 종자가 다시 번뇌를 일으키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다.

습(習)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겹 동안에 번뇌가 두텁게 쌓여서 종자(種子)가 이루어져 훈습(薰習)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물살이 빠른 물의 흐름에 따른다면 그 [물의] 빠름을 알지 못하겠지만, [그 빠른 물살에] 거스르게 되면 [그 물살의] 빠름과 맹렬함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수행자도 번뇌의 흐름에 맡겨서 생사의 바다에 이르면 [번뇌의 물결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지만, 만일 [수행자가] 도품(道品)을 닦아서 모든 존재[諸有]의 흐름에 거스르고자 한다면 번뇌가 크게 일어난다. 다만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새벽과 밤에 공(功)을 겸하여 들어야 할 것이다.¹⁵⁾

둘째, ‘업의 힘에 의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악행을 해왔고 그것이 업이 되어 마음을 관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업(業)은 헤아릴 수 없는 겹 동안 악행(惡行)이 이루어진 것이 마치 원수 같은 책무를 짊어짐과 같다는 것이니, 어찌 그대로 하여금 도(道)를 닦아서 벗어나도록 하겠는가? 그러므로 악한 업이 생기면 [악한 업이] 마음을 관조하는 것을 파괴하여 선법(善法)이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마치 강물이 고요할 때는 그 흐름을 알지 못하다가 거센 바람이 갑자기 이르면 파도가 산이 이어진 듯한 것과 같다. 만약 [배의] 돛과 키를 놓는다면 [배가] 가라앉는 것은 이 찰나[須]에 있다. 일심(一心)이 바르게 된 전후에 배를 항해할 때 [난파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¹⁶⁾

15)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2c) “習者 無量劫來煩惱重積 種子成就 薰習相續 如駛水流順之 不覺其疾 概之則知奔猛 行人任煩惱流 沿生死海 都不覺知 若修道品 泝諸有流 煩惱羗起 唯當勤勉特出 晝夜兼功耳.”

(혜명 지음, 『마하지관의 이론과 실천』(경서원, 2007), pp.378-379에 소개된 번역에는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 많다.)

16)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2c) “業者 無量劫來惡行成就 如負怨責 那得令汝

셋째, 마(魔)의 선동에 의한 것은 수행자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道)를 수행해도 마(魔)의 유혹을 받아 마(魔)의 행을 하는 것이다.

마(魔)는 만약 마(魔)의 행을 짓는다면 [이 사람은] 마(魔)의 권속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魔의 행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도(道)를 닦아서 삼계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이것을 버리고 저것에 투항한다면 10가지 마(魔)의 군대에 사로잡힌다. 그러므로 깊고 예리한 미혹이 갑자기 이른다. [이는] 마치 큰 바다의 물이 비록 바람의 흐름이 없지만, 마갈(摩竭: 물고기의 왕)이 물을 들이마시면, 만물이 달려 나가는 것을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오로지 부처의 이름을 불러야 [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¹⁷⁾

III. 번뇌를 극복하는 길: 소승의 대치법과 천태의 십승관법

3장의 내용은 2단락으로 구성된다. 우선, 번뇌를 다스림에 관한 소승과 대승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천태의 십승관법에 대해 살펴본다.

1. 번뇌의 다스림에 관한 소승과 대승의 차이점

천태지의에 따르면, 소승에서는 번뇌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5가지를 거론한다. 그것은 대치, 전치, 부전치, 검치, 구치이다. 대치(對治)는 탐

修道出離 故惡業卓起 破壞觀心 使善法不立 如河湍靜 不覺流浪 暴風卒至 波如連山 若攪攪帆柁 壞在斯須 一心正前後 行船得免”

- 17)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2c) “魔者 若作魔行 是其民屬 故不動亂 若行道出界 去此投彼 十軍攝攝 故深利之惑 欸然而至 如大海水 雖無風流 摩竭吸水 萬物奔趣 不可力拒 專稱佛名 乃得脫耳.”

욕에 대해 부정관을 닦는 것이라면, 전치(轉治)는 앞의 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부전치(不轉治)는 앞의 방법이 효과가 없더라도 그 방법을 더욱 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겸치(兼治)는 번뇌가 2가지 또는 3가지 등이라면 그에 따른 방법도 2가지 또는 3가지 등인 것이며, 구치(具治)는 앞에 소개한 4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서 번뇌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첫째, 대치(對治)는 탐욕에 대해서는 부정관으로 다스리고, 성냄에 대해서는 자비관으로 다스리며,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인연관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천태지의는 4분(四分)의 번뇌에 대해 각각 3종류의 대치가 있으므로 모두 12종류의 대치가 있다고 한다.¹⁸⁾

둘째, 전치(轉治)는 탐욕에 대해서 부정관을 닦는 것이 대치(對治)였다면, 그 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탐욕에 대해 자비관을 닦도록 하는 것이다. ‘전치’는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병이 바뀌어서 약도 바뀌는 것은 ‘전치’에도 속하고 ‘대치’에도 속한다. 예를 들면 탐욕에 대해 부정관을 닦도록 했는데, 다시 부정관이 문제가 되면 이제는 자비관을 닦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바꾸었다고 보면 ‘전치’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의 번뇌를 해결하고 다른 번뇌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면 ‘대치’에 속하는 것이다.¹⁹⁾

18)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3a) “對治者 一分煩惱即有三種 合成十二 對此亦有十二 如對寇設陣 是名對治.”

대치(對治)는 일분(一分)의 번뇌는 곧 3종류가 있으니 [4분의 번뇌에는] 합해서 12종류가 된다. [따라서] 이 번뇌를 대치하는 데도 12종류가 있다. [이는] 마치 도적을 마주대하여 진(陣)을 펼친 것과 같다. 이것을 대치(對治)라고 이른다.

19)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3a) “轉治者 如不淨是貪欲對治而非其宜 應以淨觀得脫 轉修慈心 念以淨法安樂豈加穢辱 是名轉治 若瞋人教不淨 癡人教思惟邊無邊 掉散教用智慧分別 此是病不轉而治轉 皆名轉治 若藥病俱轉 亦名轉治 亦是對治.”

전치(轉治)는 예컨대 부정관의 경우는 탐욕을 대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정한 관(淨觀)으로 [탐욕에서] 벗어나야 하니 [부정관에서] 전환해

셋째, 부전치(不轉治)는 앞에 소개한 전치(轉治)와 반대되는 것이다. ‘전치’는 탐욕에 대해 부정관을 닦다가 효과가 없으면 자비관 등을 닦는 것이다. 그에 비해 ‘부전치’는 탐욕에 대해 부정관을 닦았는데 효과가 없을 경우, 방법을 바꾸지 않고 계속 부정관을 닦으면서 그 부정관의 내용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다. 또는 탐욕에 대해 부정관을 닦았는데 이제 탐욕이 성냄으로 바뀌었다라도, 부정관을 통해서 성냄을 다스리는 것도 ‘부전치’에 속한다.²⁰⁾ 탐욕이 성냄으로 바뀌었을 때 자비관을 닦는다면 이는 앞에서 말한 대로 ‘전치’ 또는 ‘대치’에 속한다.

넷째, 겸치(兼治)는 번뇌가 한 가지라면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도 한 가지이겠지만, 번뇌가 2가지라면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도 2가지이고, 또 번뇌가 3가지라면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도 3가지인 것이다. 예를 들면 탐욕과 성냄의 2가지 번뇌가 있다면 부정관과 자비관을 닦도록 하는 것이다.²¹⁾

서 자(慈)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청정한 가르침[淨法]의 안락함을 생각해야 하는데 어찌 [부정관의 내용처럼] 더럽고 욕된 것을 보태겠는가? 이것을 ‘전치’라고 이름한다. 만약 화내는 사람에게 부정관을 가르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번(邊)과 무번(無邊)을 생각하도록 가르치며, [정신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써 분별하도록 가르친다면, 이것은 병의 증상은 전환시키지 않고 다스리는 방법[治]을 전환시킨 것이니 [이것을] 모두 ‘전치’라고 이름한다. 만약 약(藥)과 병(病)이 모두 전환되면 [이것을] ‘전치’라고도 이름하고, 또한 ‘대치’라고도 한다.

그리고 최기표 역주, 『역주 차제선문』(불광출판사, 2010년) pp.194-196에서도 ‘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3a) “不轉治者 病雖轉 治終不轉 宜修此法 但以此治 治轉不轉病故 名不轉治.”

부전치(不轉治)는 비록 병(病)은 전환되지만 다스림은 끝내 전환되지 않는 것이다. 이 법을 닦을지니 다만 이 [한 가지] 대치법만으로 전환된 병이나 전환되지 않은 병[轉不轉病]을 다스리므로 ‘부전치’라고 이름한다.

그리고 최기표 역주, 『역주 차제선문』(불광출판사, 2010년) p.196에서도 ‘부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1)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3a) “兼治者 病兼藥亦兼 如貪欲兼瞋 不淨須帶慈心 病兼一二藥亦兼一二 是名兼治.”

겸치(兼治)는 병(病)도 겸하고 약(藥)도 겸하는 것이다. 예컨대 탐욕은 성냄과

다섯째, 구치(具治)는 앞에서 소개한 대치, 전치, 부전치, 겸치를 한 가지 번뇌에 대해 사용해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²²⁾

그런데 대승에서는 앞에서 말한 소승의 5가지 방법을 부정하고 공(空) 곧 무생(無生)의 가르침 속에서 번뇌를 바라보고자 한다. 이것을 4실단으로 설명하면 소승에서는 3실단으로 번뇌를 다스리고 대승에서는 제일의(第一義) 실단으로 번뇌를 다스린다. 이 내용에 대해 『마하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승에서도 [번뇌에 대한] 다스림을 밝히는데 [그것이 앞에서 소개한] 대치(對治)도 아니고 겸치(兼治) 등도 아니다. [대승에서 말하는 것을] 제일의 대치[第一義治]라고 이름한다. [이는] 마치 아갈타약(阿竭陀藥: 不死의 약)이 여러 가지 병(病)을 다스릴 수 있는 것과 같다. 소승에서는 대개 3가지 실단(悉檀)을 사용해서 [번뇌를] 다스리고 대승에서는 대개 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을 활용해서 [번뇌를] 다스린다. [모든 존재가] 공(空)하여 생겨남이 없는[無生] 가운데 어떤 것이 번뇌이며, 누가 [그 번뇌를] 다스릴 것인가? 오히려 번뇌도 없는데 어떤 것이 있어서 전환하

함께 동반되는 것이니 [탐욕에 대한] 부정관과 [성냄에 대한] 자(慈)의 마음도 겸해야 한다. [이처럼] 병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겸하므로 약도 또한 한 가지와 두 가지를 겸한다. 이것을 ‘겸치’라고 이름한다.

그리고 최기표 역주, 『역주 차제선문』(불광출판사, 2010년) pp.196-197에서도 ‘겸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2)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3a) “具治者具用上法 共治一病 是名小乘先用五治後用諦智 乃得入眞.”

구치(具治)는 위에 소개된 대치법을 모두 활용해서 한 가지 병을 함께 대치하는 것이다. 이것을 소승에서 먼저 5가지 대치법을 사용하고, 후에 진제(眞諦)의 지혜를 사용해서 진리의 세계[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혜명, 『마하지관의 이론과 실천』(경서원, 2007년) p.381: 구치(具治)가 『차제선문』의 전치겸부전치(轉治兼不轉治)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차제선문』에서는 번뇌에 따라 ‘전치’와 ‘부전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므로 [최기표 역주, 『역주 차제선문』(불광출판사, 2010년) p.197]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 대치, 전치, 부전치, 겸치를 모두 사용한다는 『마하지관』의 ‘구치’와는 조금 다르다. ‘구치’에서는 『차제선문』의 ‘전치겸부전치’와 달리 ‘겸치’도 포함된다.

겠는가? 이미 전환할 대상이 없다면 또한 겸치(兼治)와 구치(具治)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무생(無生)이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번뇌를 두루 다스린다. 이것은 극히 간략히 말한 것이니 [그 의미를] 잘 취해야 할 것이다.²³⁾

2. 번뇌경의 십승관법

십승관법은 수행인이 닦는 구체적 내용이다. 십승관법의 내용은 10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내용을 볼 때 5가지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이는 천태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념삼천설’과 ‘일심삼관’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천태사상에만 국한한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둘째,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자비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셋째, 지관(止觀)을 닦아야 한다. 지식과 자비의 마음을 갖추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에 임하는 것이다. 넷째, 수행자 스스로 자신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수행자의 공통된 심리가 깨달음의 경지를 빨리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체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쉽다. 이는 불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분야든지 쉽게 최고라

23)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3a) “大乘明治 非對非兼等 名第一義治 如阿耨陀藥能治衆病 小乘多用三悉檀爲治 大乘多用第一義悉檀爲治也 空無生中 誰是煩惱 誰是能治 尙無煩惱 何物而轉 既無所轉亦不兼具 但以無生一方 遍治一切也 此極略須善取意也.”

대승의 대치법은 『차제선문』의 비대비전비겸치(非對非轉非兼治)와 같은 내용이다. ‘비대비전비겸치’는 제일의실단으로서 반야의 정관(正觀)을 말하는 것이다. (혜명 지음, 『마하지관의 이론과 실천』(경서원, 2007년) pp.380-381에서는 대승의 대치법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고 만족하는 사람은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 다섯째, 진리에 대한 애착마저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애착도 버리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교인의 입장에서는 불교가 진리라는 입장을 버리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최고경지는 불교에 대한 애착마저도 버릴 때 열린다는 것이 여러 불교종파의 공통된 가르침이다.²⁴⁾ 그러면 십승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① 생각을 넘어선 경계를 관조한다는 것[觀不思議境]은 ‘일념삼천설’과 ‘일심삼관’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천태 실상론(實相論)이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다. 일념삼천설(一念三千說)은 한 마음에 3,000가지 가능성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3,000이란 숫자는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일념삼천설의 의미는 사람이 부처가 될 수도 있지만 지옥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심삼관(一心三觀)은 공(空)·가(假)·중(中)이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번뇌경의 ‘생각을 넘어선 경계를 관조한다는 것’에서는 무애도(無礙道)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② 진정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發真正菩提心]에서는 앞에서 말한 ‘생각을 넘어선 경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바른 보리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4홍서원(四弘誓願)으로 요약된다. 이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것, 모든 번뇌를 끊겠다는 것, 모든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것,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것이다. 번뇌경에서의 ‘진정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마하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4) 이병욱, 『천태사상』(태학사, 2005년) pp.119-121.

이와 같이 관조할 때 자기의 허물을 후회하는 것에 이르고 중생을 널리 가엽게 여긴다. 무슨 이유인가? 진리는 밝음과 어둠이 아니지만, 미혹으로 인해서 고(苦)와 집(集)의 어두움을 일으키고, 벗어나는 가르침[解治法]으로 인해서 도(道)와 멸(滅)의 밝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두움에 근거해서 비(悲)를 일으키고, 밝음에 근거해서 자(慈)를 일으킨다. 크게 서원하는 마음은 경계와 함께 일어난다.²⁵⁾

③ 지관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善巧安心]은 지관으로 진리의 본성인 법성에 안주하는 것이다. 이는 원(願)을 세우고 지관(止觀)수행에 힘쓰는 것이다. 이 내용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론부에서 128가지 안심(安心)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번뇌경의 ‘지관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에서도 지관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공(空), 가(假), 중(中)을 내용으로 하는 3지와 3관을 닦는 것이다. 『마하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행(行)을 세워야 한다. 행(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관(止觀)을 앞서는 것이 없다. 4분(四分)의 번뇌가 공(空)이라고 체득하는 것을 체진지(體眞止)와 입공관(入空觀)이라 이른다. 모든 번뇌의 약(藥)과 병(病) 등의 존재를 관조하는 것을 수연지(隨緣止)와 입가관(入假觀)이라 이른다. 모든 번뇌가 진제(眞際)와 동일하다고 관조하는 것을 식이변지(息二邊止)와 입중도관(入中道觀)이라 이른다. 뛰어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이러한 3가지 지(止)와 3가지 관(觀)을 닦아서 일심의 삼안(三眼)과 삼지(三智)를 이룬다.²⁶⁾

25)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4b) “如是觀時 追傷已過 廣愍衆生 何以故 理非明闇 以迷惑故 起苦集闇 解治法故 有道滅明 約闇故悲 約明故慈 大誓之心與境俱起。”

26)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4b) “爲滅煩惱故 須立要行 行之要者 莫先止觀 四分煩惱體之即空 名體眞止入空觀也 觀諸煩惱藥病等法 名隨緣止入假觀 觀諸煩惱同眞際 名息二邊止入中道觀 善巧安心修此三止三觀 成一心三眼三智也。”

④ 전도된 생각을 깨뜨리는 것[破法遍]은 중생이 전도(顛倒)된 경우가 많고 전도되지 않은 경우는 적으므로 중생의 전도된 생각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지관을 통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였다면 선정과 지혜가 열리어서 다시 깨뜨릴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아직 법성과 상응하지 못했다면 전도된 생각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번뇌경에서의 ‘전도된 생각을 깨뜨리는 것’은 4가지 번뇌가 생각 생각마다 3가(三假: 인성가, 상속가, 상대가)라고 관조하는 것이다. 이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안목과 지혜가 열리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장애를 깨뜨린다. 4분(四分)의 번뇌가 생각 생각마다 3가(三假)라고 관조하고 자(自)와 타(他)와 공(共: 自와 他가 함께 하는 것)과 이(離: 自와 他도 아닌 것)도 아니라고 관조하고, 단(單)과 복(復)을 갖춘 것도 아니라고 관조해서, 견사(見思)가 생기지 않으면, 병을 알고 약을 알아서 무지(無知)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진(眞)도 아니고 연(緣)도 아니라고 관조하면, 무명(無明)도 생기지 않는다. 횡(橫)과 수(豎)로 깨뜨리는 것이 두루하다.²⁷⁾

⑤ 막히고 통한 부분을 아는 것[識通塞]은 자신의 수행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다. 앞에서 전도된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철저하였다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상태를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번뇌경의 ‘막히고 통한 부분을 아는 것’에서는 법성이 뒤집혀서 무명이 되는 것을 막힘이라고 하고, 무명이 밝음[明]이 되는 것을 통함이라고 말한다. 이 대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7)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4b) “若眼智未開 破障令通 觀四分煩惱念念三假 非自他共離單復具足見思不生 知病識藥無知不生 非眞非緣無明不生 橫豎破遍.”

공(空)에 즉한 가운데 고(苦)와 집(集)을 도리어 만들어내는 것을 막힘을 아는 것[知塞]이라 이름하고, 고(苦)와 집(集) 가운데서 [그것이] 공(空)이라는 것을 통달하는 것을 통함을 아는 것[知通]이라 이름한다. 모든 존재의 약(藥) 가운데에서 도리어 병(病)을 이루는 것을 막힘을 아는 것[知塞]이라 이름하고, 모든 병(病)의 존재 가운데 약(藥)을 곧 알 수 있는 것을 통함을 아는 것[知通]이라 이름한다. 법성(法性)을 뒤집어서 무명(無明)이 되는 것을 막힘[塞]이라 이름하고, 무명(無明)이 전개되어 변하여 밝음[明]이 되는 것을 통함[通]이라 이름한다.²⁸⁾

⑥ 37도품으로 수행하는 것[道品調適]은 37도품으로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다. 37도품은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므로 이는 소승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대승의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소승의 방법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숨겨져 있다. 번뇌경의 ‘37도품으로 수행하는 것’에서도 도품을 닦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모든 5음(五陰)이 공, 가, 중임을 관조하는데, 5음이 공(空)임을 관조해서 범부의 전도를 깨뜨리고, 5음이 가(假)임을 관조해서 이승의 전도를 깨뜨리며, 5음이 중(中)임을 관조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 문은 다음과 같다.

또한 번뇌를 관조해서 도품(道品)을 닦는다. 4분의 마음(번뇌)이 일어나면 5음(五陰)을 더럽힌다. 하나의 음(陰)이 헤아릴 수 없는 음(陰)이고, 수(受), 상(想), 행(行), 식(識)도 헤아릴 수 없다. 모든 음(陰)이 그대로 공(空)이므로 범부의 전도(顛倒)가 깨뜨려지고 소승의 마른 나무[小枯

28)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4b-c) “於即空中翻構苦集 是名知塞 於苦集中達即是空 是名知通 於諸法藥 翻構爲病 是名知塞 於諸病法即能知藥 是名知通 翻法性爲無明 名之爲塞 無明轉即變爲明 名之爲通.”

樹]가 이루어진다. 모든 음(陰)이 그대로 가(假)이므로 이승의 전도가 깨뜨러지고 대승의 무성한 나무[大榮樹]가 이루어진다. 모든 음(陰)이 그대로 중(中)이므로 [소승의] 마른 나무[枯]와 [대승의] 무성한 나무[榮]의 가르침을 없애고, 2변이 고요해서 큰 열반에 들어나고, 내지 3해탈을 열어서 청량한 연못[清涼池]에 들어간다.²⁹⁾

⑦ 보조적인 수행법으로 수행하는 것[助道對治]은 37도품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그 밖의 여러 보조적인 수행법을 활용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번뇌경의 ‘보조적인 수행법으로 수행하는 것’에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각관(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균등하게 일어난 것)을 극복하는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두터우면 조도(助道)를 닦아야 한다. 이미 벗어남[解]과 미혹은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니 [미혹에서 벗어남] 방법[援]을 찾아야 한다. 바깥의 탐욕이 일어나면 부정관(不淨觀)으로 [바깥의 탐욕을 제거하는 것]을 돕고, 내면의 탐욕이 일어나면 8배사(八背捨: 정결한 五陰을 등지고 집착심을 버리는 8단계 수행법)로 [내면의 탐욕을 제거하는 것]을 돕는다. 내면과 외면의 탐욕이 일어나면 8승처(八勝處: 오욕을 깨뜨리는 8단계 수행법)로 돕는다.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성냄(違法瞋)이 일어나면 중생자(衆生慈: 중생이 일으키는 자비)로 돕고, 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 성냄[順法瞋]이 일어나면 법연자(法緣慈: 번뇌가 없어진 聖人이 일으킨 자비)로 도우며, 희론에 대한 성냄[戲論瞋]이 일어나면 무연자(無緣慈: 부처가 갖는 자비)로 돕는다.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을 헤아림이 일어나면 삼세(三世)의 인연(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돕고, 아상(我相)과 인상(人相)을 헤아림이

29)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4c) “又觀煩惱而修道品 四分心起 卽污穢五陰 一陰無量陰 受想行識亦復無量 諸陰卽空 凡夫倒破小枯樹成 諸陰卽假 二乘倒破大榮樹成 諸陰卽中 廢枯榮教 二邊寂滅入大涅槃 乃至開三解脫入清涼池也。”

일어나면 2세(二世)의 인연(주관과 객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도우며, 성품이 실제[性實]라는 헤아림이 일어나면 일념(一念)의 인연으로 돕는다. 분명하고 날카로운[明利] 각관이 일어나면 수식관(數息觀)으로 돕고, 혼침(昏沈)의 각관이 일어나면 호흡을 관조하는 것[觀息]으로 돕고, 반은 혼침이고 반은 분명하고 날카로운 각관이 일어나면 호흡을 따르는 관법[隨息]으로 돕는다.³⁰⁾

⑧ 자신의 수행단계를 아는 것[明次位]은 자신이 어느 정도 수행경지에 이르렀는지 아는 것이다. 앞에서 대승과 소승의 여러 수행방법을 모두 사용했는데도 큰 진전이 없었다면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막혀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증득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알아서 증득하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 번뇌경의 ‘자신의 수행단계를 아는 것’에서는 번뇌를 없앤 것이 견사(見思)의 번뇌인지, 진사(塵沙)의 번뇌인지, 무명(無明)의 번뇌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증득했다고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도(助道)가 강하기 때문에 열반(涅槃)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열반의 문을] 아직 열지 못했을 때에 혹 한 종류의 이해의 마음[解心]을 얻거나 혹 한 종류의 선정(禪定)을 얻었다면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초목이나 기와나 조약돌을 가지고 망령되게 유리의 구슬[琉璃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초목 등을 가지고 유리의 구슬이라고] 긍정적

30)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4c) “若遮障重 當修助道 既解惑相持 便應索援 外貪欲起 以不淨助 內貪欲起 以背捨助 內外貪欲起 以勝處助 違法瞋起 衆生慈助 順法瞋起 法緣慈助 戲論瞋起 無緣慈助 計斷常起 三世因緣助 計我人起 二世因緣助 計性實起 一念因緣助 明利覺起 數息助 沈昏覺起 觀息助 半沈半明覺起 隨息助.” 大野榮人 著, 『天台止觀成立史の研究』(京都: 法藏館, 平成 6년), p.456에서는 “위법(違法)의 진애(瞋恚)가 일어나면 무연(無緣)의 자(慈)를 가지고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몇 개의 문장이 빠진 것으로 잘못된 번역이다.

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번뇌가 없어지겠는가? [한 종류의 이해의 마음이 나 선정으로 없애는 번뇌가] 견사(見思)의 번뇌인가? 진사(塵沙)의 번뇌인가? 무명(無明)의 번뇌인가? 모든 수행지위에서는 [해당 수행자가 체험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잘못 긍정한다면 [이는] 쥐가 내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만약 공(空)도 공(空)한 것이라고 한다면(그래서 해당 수행자가 자신이 체험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공한 새(空鳥)를 없다[空]고 하는 것과 같다. 수행의 단계를 알지 못하면 [해당 수행자의 모습에서 보면] 관행(觀行)에서는 비슷하지만 [내용에서는] 아직 제대로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경지도] 위의 단계를 제멋대로 주장하여 괴이한 꼴을 이루게 된다.³¹⁾

⑨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행을 한다는 것[能安忍]은 자신이 얻은 경지에 따라 수행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위의 8가지 단계를 통해서 수행자가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각각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아직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서지 말고 더욱 수행에 힘써야 할 것이고, 지혜가 밝고 분명한 사람이라면 이제 세상에 나서서 여러 사람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신의 경지에 대해서는 수행자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므로 분명하게 자신의 경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수행하라는 것이다. 번뇌경의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행을 한다는 것’에서는 안인(安忍)해서 안과 밖의 장애를 넘어서면 보살이고 안인(安忍)했는데도 안과 밖의 장애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보살의 자격이 없다고 한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만약 안과 밖의 장애가 일어나면 마땅히 잘 안인(安忍)해야 할 것이다.

31)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4c) “助道強故能開闢涅槃門 於未開頃 或得一種解心或得一種禪定 當熟思量 草木瓦礫 勿妄持 謂是琉璃珠 若謂即是者 何煩惱滅 見耶思耶 塵沙耶 無明耶 諸位全無 謬謂即是 猶如鼠啣 若言空空 如空鳥空 未識次位 觀行相似 全未相應 濫叨上位 所以成怪。”

안인(安忍)하였는데도 [안과 밖의 장애를] 넘어서 수 없다면 보살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안인(安忍)하여 [안과 밖의 장애에 대해 마음] 움직이지 않았다면 보살(보리살타)이 된 것이다. 곧 상(償)을 받아서 도(道)와 비슷한 선(禪)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³²⁾

⑩ 진리에 대한 애착마저 버리는 것[無法愛]은 불타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애착이 없는 것이다. 위의 9가지 관법을 잘 닦았으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타의 가르침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불타의 가르침조차 넘어서야 한다. 물론 불타의 가르침은 수행자에게 지침이 되는 것이지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이마저 넘어서야 할 대상인 것이다. 번뇌경의 ‘진리에 대한 애착마저 버리는 것’에서도 법애(法愛) 곧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애착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상을 받을 때에 법애(法愛)가 생겨서는 안 된다. 법애(法愛)는 진정한 도(眞道)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위(頂位)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다면 [이 수행자가] 자재하고 걸림이 없음이 마치 바람이 허공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 때의] 수행단계는 동륜(銅輪)의 단계(十住의 단계)에 들어가서 무명의 번뇌를 끊고 무생인(無生忍)을 이룬다. [이는 『법화경』에서 말하는] 높고 넓고 큰 하나의 수레를 얻고 [이 마차를] 종들이 따르면서 호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보배의 수레를 타고 도랑에 곧장 이른다. 이것을 4분의 번뇌가 모든 불법(佛法)을 갖추었다고 이름하고, 또한 도가 아닌 것(非道)을 행해서 불도(佛道)에 통달했다고 이름하며, 또한 번뇌가 보리라고 이름하고, 또한 번뇌를 끊지 않고서 열반에 들어간다고 이름한다.³³⁾

32)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4c) “若內外障起 當好安忍 忍若不過 敗壞菩薩 安忍不動 薩埵可成 卽獲償賜 似道禪慧.”

IV. 번뇌를 넘어서는 길에서의 천태의 특색: 무애도(無礙道)

앞에서 천태종에서 번뇌를 넘어서는 방법으로서 번뇌경에 대한 심승관법을 소개하였는데, 심승관법의 첫 번째 항목인 관부사의경(觀不思議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관부사의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3단락으로 전개된다.

1. 무애도(無礙道)의 기초: ‘번뇌를 조복함’과 ‘번뇌를 조복하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음

번뇌경에서의 관부사의경의 내용은 번뇌를 따라서도 안 되고 번뇌를 끊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번뇌를 따르면 이는 악도(惡道)를 향하는 것이고, 번뇌를 끊는다고 하면 증상만(增上慢)을 이룬다. 그래서 번뇌를 조복하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번뇌를 조복하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부사의경(不思議境)은 다음과 같다. 『무행경』에서 “탐욕 그대로 도(道)이고 성냄과 어리석음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3가지 법(탐욕, 성냄, 어리석음) 가운데 모든 불법(佛法)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4가지 번뇌(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3가지가 균등하게 일어난 것)는 그대로 도(道)이지만 [이 4가지 번뇌를] 다시 따라서는 안 된다. [4가지 번뇌를] 따르면 사람을 악도(惡道)로 향하게 만든다. [4가지 번뇌를] 다시 끊어서도 안 되니, [4가지 번뇌를] 끊으면 증상만을 이룬다. 어리석음과 애착을

33)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4c) “得是偕時 莫生法愛 愛妨眞道 若無頂墮自在無礙 如風行空 位入銅輪 破無明惑 成無生忍 得一大車高廣 僕從而侍衛之 乘是寶乘 直至道場 是名四分煩惱具足一切佛法 亦名行於非道通達佛道 亦名煩惱是菩提亦名不斷煩惱而入涅槃.”

끊지 않고 모든 밝음과 해탈을 일으켜야 도(道)라고 이름한다. [이것이]
[번뇌를] 조복함에도 머물지 않고 [번뇌를] 조복하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³⁴⁾

어리석은 사람[凡夫]은 욕심을 내고 물들어서 4가지 번뇌를 따른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번뇌를 조복하지 않음에 머문다. 이승(二乘)
의 사람은 생사를 두려워해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승의 사람은 번
뇌를 조복함에 머문다.³⁵⁾ 그에 비해 대승의 사람인 보살은 생사에 대
해 용감하고 열반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생사에 대해 용감하므로
태어나지만[生] 무생(無生)이고, 열반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공(空)도
공(空)이 아님을 알아서 공(空)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번뇌를] 조복하지 않음에 머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고 [번뇌
를] 조복함에 머무는 것은 성문의 가르침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범부
는 욕심내고 물들어서 4가지 번뇌에 따르게 되어 생사의 무거운 짐이
서로 어긋나서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복하지 않는다’
라고 이름한다. 이승(二乘)은 생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원수에게
쫓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3계를 속히 벗어난다. 아라한은 ‘조복하지 않
는다’라고 이름하는데 [아라한에게는] 3계의 번뇌가 다해서 조복할 만한
번뇌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복하지 않는 것’을 ‘조복하는 것’이
라고 이름한다. 탄 씨앗은 발아하지 않고 뿌리가 손상된 것은 쓸모가
없다(이승의 존재가 그렇다는 의미다). 보살은 이승과 다르다. [그래서

34)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3b) “不思議境者 如無行云 貪欲即是道 悲癡亦如
是 如是三法中 具一切佛法 如是四分 雖即是道 復不得隨 隨之將人 向惡道 復不得斷
斷之成增上慢 不斷癡愛 起諸明脫 乃名爲道 不住調伏 不住不調伏。”

35)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3c) “北方備此兩失。”

양자강 북쪽의 수행자가 부사의경(不思議境)을 잘못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잘못과 성문(聲聞)의 잘못을 범한다.

보살은] 생사에 대해서 용감하고 열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보살이] 생사에 대해서 용감하므로 [보살은] 무생(無生)이면서 생겨나고, [따라서] 생기는 존재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는] 마치 꽃이 진흙 속에 있고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보살은] 열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공(空)이 공이 아님[不空]을 알고 따라서 공의 가르침도 목표로 삼지[證] 않는다. [이는] 마치 새가 허공을 날지만 허공에 머물지 않는 것과 같다. [이처럼 보살은]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고 [보살은] 5욕을 끊지 않고 모든 인식기관[根]을 청정하게 한다. [이것이] 조복하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조복하지 않은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다.³⁶⁾

2. 무애도(無礙道)에 대한 잘못된 2가지 이해

위에서 제시한 “번뇌를 조복함에도 머물지 않고 번뇌를 조복하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에 듣고 두 가지 잘못된 행동유형이 생긴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과 잘못된 수행자의 행동이다.

우선,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부터 살펴본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잘못 판단해서 ‘번뇌를 조복하는 것도 무방하고 번뇌를 조복하지 않음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무애도(無礙道)라고 주장하면서 태연하게 음행을 행하고 공공연하게 옳지 않은 일[非法]을 행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내용에 대해 『마하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36)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3b-c) “住不調伏是愚人相 住於調伏是聲聞法 所以者何 凡夫貪染隨順四分 生死重積狼戾難馴 故名不調 二乘怖畏生死如爲怨逐 速出三界 阿羅漢者名爲不調 三界惑盡無惑可調 如是不調名之爲調 焦種不生根敗無用 菩薩不爾 於生死而有勇 於涅槃而不味 勇於生死 無生而生 不爲生法所汚 如花在泥 如鳥飛空 不味涅槃 知空不空 不爲空法所證 如鳥飛空不住於空 不斷煩惱而入涅槃 不斷五欲而淨諸根 即是不住調伏不住不調伏意.”

지금 말세의 어리석은 사람이 암라(菴羅)의 과일이 달콤해서 입에 맞는다는 말을 듣고 곧 그 [암라의] 씨앗을 깨뜨려서 맛을 보면 [그 암라의 씨앗이] 매우 써서 과일 종류의 달콤한 맛 전부를 알지 못하게 된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암라의] 씨앗을 깨뜨린 것은 너무 지나친 행동이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조복도 아니고 조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가르침을 듣고서는 또한 [잘못 판단해서] 조복도 무방하고(걸림이 없고) 조복하지 않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무방하다(걸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애도(無礙道)라고 이름하고, 걸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연하게 음행을 제멋대로 행한다. 공공연히 옳지 않은 일[非法]을 행하고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어서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 금수와 서로 다르지 않다. 이것이 소금을 먹은 것이 너무 지나쳐서 [소금의] 짠 맛이 갈증을 일으켜서 병을 일으키는 형국이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무애(無礙)의 가르침을 애착하면 이 사람이 부처님과 멀어지는 것이 비유하면 하늘과 땅과 같다.”라고 하였고, 『대경(大經)』에서 말하기를 “내가 무상(無相)을 닦는다고 말하면, 무상(無相)을 닦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도가 아닌 것[非道]을 행하고서 불도(佛道)에 통달하기를 바라는 격이어서 또한 스스로 옳게 해서 범부의 비루함과 같아질 것이다. 이것이 조복하지 않음에 머물고는 머무르지 않음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住不調非不住].³⁷⁾

둘째, 잘못된 수행자는 탐욕에 즉해서 도(道)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탐욕을 끊어야 도(道)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승의 수행자는 조복함

37)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3c) “今末代癡人聞菴羅果甘恬可口 卽碎其核嘗之甚苦 果種甘味一切皆失 無智慧故刻核太過 亦復如是 聞非調伏非不調伏 亦不礙調伏亦不礙不調伏 以不礙故名無礙道 以無礙故灼然淫佚 公行非法無片羞恥 與諸禽獸無相異也 此是噉鹽太過 鹹渴成病 經云 貪着無礙法 是人去佛遠 譬如天與地 大經云 言我修無相則非修無相 此人行於非道 欲望通達佛道 還自塞塞同於凡鄙 是住不調非不住也。”

에도 머물지 않고 조복하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변(二邊)을 깨뜨리고자 수행을 한다. 이 내용에 대해 『마하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시 어떤 수행자가 조복함에도 머물지 않고 조복하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변(二邊)을 두려워해서 깊이 스스로 [이 가르침을] 다투듯이 간직한다. 그리하여 중도의 지혜[中智]를 닦아서 2변을 깨뜨리고자 한다. 이러한 사람은 탐욕에 즉해서 도(道)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탐욕을 끊고 나서야 그것이 도(道)라고 말한다. 이것이 조복하는 마음에 머물러서 머물지 않음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住調伏心非不住].³⁸⁾

그렇지만 앞에 소개한 것처럼,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조복함’과 ‘조복하지 않음’에 머문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 ‘조복하지 않음’에 속한다. 그 이유는 모두 범부의 마음으로 행한 것이지 현인(賢人)과 성인(聖人)의 행(行)이 아니기 때문이다.³⁹⁾

3. 무애도(無礙道)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러면 ‘조복함과 조복하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떤 것에도 머무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어떤 것도 부정하지만 또한 어떤

38)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3c) “復有行人聞 不住調伏 不住不調伏 怖畏二邊 深自競持 欲修中智 斷破二邊 是人不能即貪欲是道 斷貪欲已 方云是道 此乃住調伏心 非不住也.”

39)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3c) “如是調與不調 皆名不調 何以故 悉是凡情非 賢聖行.” 이와 같은 조복함과 조복하지 않음은 모두 ‘조복하지 않음’이라 이른다. 무슨 까닭인가? 모두 범부의 마음[으로 행한 것]이요, 현인과 성인의 행(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것도 긍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자재한 근거는 일즉일체(一卽一切)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一]와 전체[一切]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를 긍정하는 것은 곧 하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를 긍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는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순수한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를 부정한다고 해도 그 근원에서 하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를 긍정한다고 해도 그 근원에서 보면 분별하는 대상으로서 하나가 아니다.⁴⁰⁾

여기서 무애도(無礙道)에 초점을 맞추면 일즉일체(一卽一切)에서 하나[一]는 탐욕에 해당한다. 탐욕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탐욕을 조복하는 것은 탐욕을 조복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탐욕을 조복하지 않는 것은 탐욕을 조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논의를 좁혀서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 천태지의는 그 근거로 공(空), 가(假), 중(中)과 ‘쌍으로 비춤’을 제시한다. 번뇌가 공(空)이므로 곧 번뇌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번뇌를 긍정하는 쪽인 번뇌를 조복하지 않음에 머물지 않는다. 번뇌가 가(假)이므로 곧 번뇌의 가유(假有)를 인정하므로 번뇌를 부정하는 쪽인 번뇌를 조복하는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 번뇌가 중(中: 非有非無)이므로 곧 번뇌의 공(空)도 부정하고 번뇌의 가(假)도 부정하므로, 번뇌의 공(空)[번뇌를 조복함]과 번뇌의 가(假)[번뇌를 조복하지 않음]에 근거한 조복함과 조복하지 않음[亦調伏亦不調伏]에도 머물지 않는다. 번뇌를 쌍으로 비추어 보는 것은 곧 번뇌가 공(空)이면서 가(假)라고 보는 것이고,

40)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4a) “若一念煩惱心起 具十界百法 不相妨礙 雖多不有 雖一不無 多不積 一不散 多不異 一不同 多卽一 一卽多.”

만약 일념의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10법계와 100법을 갖추어서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비록 많은 것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하나이지만 없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것은 쌍이지 않은 것이고 하나는 흩어지지 않는다. 많은 것이라고 해도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라고 해도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것[多]은 하나[一]이고 하나[一]는 많은 것[多]이다.

이는 번뇌를 조복함이면서 조복하지 않음이므로 조복함도 아니고 조복하지 않음[非調伏非不調伏]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천태 대사는] 말한다. 조복함[調伏]에 머물지 않고 조복하지 않음[不調伏]에도 머물지 않으며, 조복함도 아니고 조복하지 않음도 아닌 것[非調伏非不調伏]에도 머물지 않으며, 조복함과 조복하지 않음[亦調伏亦不調伏]에도 머물지 않는다. 또한 조복함[調伏]에도 머물고, 조복하지 않음[不調伏]에도 머물며, 조복함도 아니고 조복하지 않음도 아닌 것[非調伏非不調伏]에 머물며, 조복함과 조복하지 않음[亦調伏亦不調伏]에도 머문다. 무슨 까닭인가? 번뇌가 공(空)이므로 조복하지 않음[不調伏]에 머물지 않고, 번뇌가 가(假)이므로 조복함[調伏]에도 머물지 않으며, 번뇌가 중(中)이므로 조복함과 조복하지 않음[亦調伏亦不調伏]에도 머물지 않는다. 번뇌를 쌍(雙)으로 비추므로 조복함도 아니고 조복하지 않음도 아닌 것[非調伏非不調伏]에도 머물지 않는다. 비록 조복하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조복하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지만, 실제로는 조복함에 머물고 조복하지 않음 등에 머무는 것이다. 비록 실제로는 조복함에 머물고 조복하지 않음에 머문다고 해도 실제로는 조복함에도 머물지 않고 조복하지 않음 등에도 머물지 않는다. 무슨 이유인가? 한 구절만을 치우치게 관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구절은 모든 구절이고, 모든 법은 탐욕에 나아가기 때문이며, 탐욕은 모든 법의 수도(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모든 구절을 두루한다. 이른바 탐욕이 있다고 분별하는 것은 조복하지 않음[不調伏]에 머무는 것인데 [이것을] 조복함[調伏]에 머물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다(탐욕에 의미를 부여하는 수행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이 자재하게 말한다.⁴¹⁾

41)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3c-104a) “今言 不住調伏 不住不調伏 不住非調伏 非不調伏 不住亦調伏亦不調伏 亦住調伏亦住不調伏 亦住非調伏非不調伏 亦住亦調伏亦不調伏 何以故 煩惱卽空故不住不調伏 煩惱卽假故不住調伏 煩惱卽中故 不住亦調伏亦不調伏 雙照煩惱故 不住非調伏非不調伏 雖不住調不調等 而實住調不調等 雖實住調不調等 而實不住調不調等 何以故 不偏觀一句故 一句卽諸句 一切法趣貪欲

그러면 무애도(無礙道)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대승의 보살은 번뇌를 조복하기도 하고 번뇌를 조복하지 않기도 한다. 번뇌를 조복해서 번뇌가 공(空)임을 깨달아서 생사의 집착에서 벗어난다. 또 한 번뇌를 조복하지 않아서 그것을 단서로 해서 탐욕의 정체를 잘 알아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교화하고 그러한 관조의 힘으로 생사에서 벗어난다. 번뇌를 조복하는 쪽은 자신의 수행을 강조하는 쪽이라면, 번뇌를 조복하지 않는 쪽은 중생을 교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또 한 보살은 조복함과 조복하지 않음을 다 부정하기도 하고, 조복함과 조복하지 않음을 다 인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애도(無礙道)의 목표는 자신과 남을 다 이롭게 하자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체달(體達)하는 것을 무애도(無礙道)라고 이름한다. 모든 무애인(無礙人)이 일도(一道)로 생사에서 벗어난다. 어떻게 [생사에서] 벗어나는가? 어떤 때에는 탐욕이 필경에는 청정해서 업매임도 없고 번뇌[染]도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다고 체달해서 생사에서 활연히 벗어난다. 이것을 조복함에 머물러서 이익을 얻는 것[住調伏得益]이라고 이름한다. 어떤 때에는 마음을 풀어놓아서 이 탐욕의 본말(本末)의 인연을 관조해서 어떤 종류가 병(病)이 되고 어떤 종류가 약(藥)이 되는지 판단한다. [이는] 마치 화수밀다(和須蜜多, 『화엄경』의 53선지식 가운데 한 사람)가 이욕(離欲)에 들어갈 즈음해서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관조할 때 활연히 생사에서 벗어난다. 이것을 조복하지 않음에 머물러서 이익을 얻는 것[住不調得益]이라 이름한다. 어떤 때에는 두 가지(조복함과 조복하지 않음)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다. 어떤 때에는 두 가지(조복함과 조복하지 않음)를 관조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와 같이 뛰어나게 응당 머물기도 하고 응당 머물지 않기도 해서, 나와 남이 모두 이익을 얻으며, 보살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족함이

故 貪欲是諸法所都故 用此意歷一切句 所謂計貪欲是有 名住不調伏 計之爲無住於調伏 如是等自在說(云云).”

없다. [보살은] 4실단으로 스스로 판단한다.⁴²⁾

그래서 무애도(無礙道)는 결국 4실단(세계, 위인, 대치, 제일의)의 활용으로 귀결된다. 4실단의 의미를 잘 안다면 번뇌를 조복하거나 번뇌를 조복하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도 잘못이 없지만, 만약 4실단의 의미를 모른다면 번뇌를 조복하거나 번뇌를 조복하지 않거나 그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되어서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제하지 못한다.

실단[의 의미]을 잘 관조한다면 자신이거나 다른 사람이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조복함에 머물거나 조복하지 않음에 머물거나 [이러한 일에] 모두 잘못이 없다. 조복함에 머무는 것과 조복하지 않음에 머무는 것 등이 모두 잘못이 없다. 만약 4실단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조복함과 조복하지 않음에] 머물거나 머물지 않더라도, 스스로 애착의 그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나무람과 업신여김을 일으킨다. 그래서 스스로 장애되고 다른 사람을 장애하니 [이는] 무애법(無礙法)이 아니다.⁴³⁾

V. 결론

이 글에서는 번뇌에 대한 천태의 관점, 곧 ‘번뇌의 종류’ 등과 ‘번뇌

42)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4a) “如是體達 名爲無礙道 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 云何出耶 有時 體達貪欲 畢竟清淨 無累無染 猶如虛空 豁出生死 是名住調伏得益 或時縱心 觀此貪欲本末因緣 幾種是病 幾種是藥 如和須蜜多 入離欲際 度脫衆生 作是觀時 豁出生死 是名住不調得益 或時二俱非故得益 或時俱觀得益 如是善巧 應住不應住 自他俱益 於菩薩法 無所損減 以四悉檀 而自斟酌。”

43) 『마하지관』 8권 (『大正藏』 46권, 104a) “巧觀悉檀 若自若他若近若遠 住調伏不調等 皆當無失 不住調不調等亦皆無失 若不得四悉檀意 若住不住 自織愛網 起他譏慢 自礙礙他 非無礙也。”

를 넘어서는 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고 필자의 견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번뇌의 종류와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과 인연에 대해 서술하였다. 천태지의는 번뇌경(煩惱境)에서 ‘번뇌의 종류’로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균등하게 일어나서 생긴 것,’ 이 4가지를 거론한다. 이것은 다시 2가지로 구분된다. 그것은 이승(二乘)의 사람이 끊을 수 있는 ‘통(通)번뇌’와 이승의 사람이 끊을 수 없는 ‘별(別)번뇌’이다. 그리고 번뇌의 종류를 자세히 거론하면 오히려 관문(觀門)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천태지의는 『마하지관』의 다른 곳에서 견사(見思), 진사(塵沙), 무명(無明)을 말한다. 이는 차제삼관(次第三觀)에 맞추어서 제시된 것이다. 공관(空觀)에 의해서 견사의 번뇌를 깨뜨리고, 가관(假觀)에 의해 진사의 번뇌를 깨뜨리며, 중관(中觀)에 의해 무명의 번뇌를 깨뜨린다. 이처럼 번뇌의 분류에 대해 천태지의가 두 가지를 거론한 것은 그의 번뇌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4가지를 거론한다. 그것은 번뇌가 깊지만 예리하지 않은 것, 번뇌가 예리하지만 깊지 않은 것, 번뇌가 깊으면서도 예리한 것, 번뇌가 깊지도 않고 예리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런데 천태지의는 앞의 3가지가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이고, 뒤의 ‘번뇌가 깊지도 않고 예리하지도 않은 것’은 평상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모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번뇌가 깊은 모습’은 번뇌가 일어났을 때 깊고 두터워서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이고, ‘번뇌가 예리한 모습’은 번뇌가 자주 일어나서 그것이 깊어지고 두터워지는 것이다.

‘번뇌가 일어나는 인연’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그것은 습인종자(習因種子), 업(業)의 힘에 의한 것, 마(魔)의 선동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습인종자는 오랜 세월 동안 업을 쌓아왔고 그것이 종자가 되어 번뇌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3장에서는 소승과 대승, 천태종에서의 ‘번뇌를 넘어서는 길’에 대해 서술하였다. 소승에서는 번뇌를 대치할 때 번뇌가 공(空)이라고 보지 못하는데, 『마하지관』에서는 이 대치법에 대해 5가지로 자세히 구분하고 있다. 그에 비해, 대승에서는 번뇌가 공(空)이라고 관조해서 대치하며, 천태종에서는 대승의 입장을 더욱 구체화해서 번뇌경(煩惱境)에 대한 심승관법을 통해서 번뇌를 다스린다.

4장에서는 천태종에서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 곧 심승관법 가운데 첫 번째 항목 관불사의경(觀不思議境)만을 따로 분리해서 접근하였다. 여기서는 무애도(無礙道)를 제시하였다. ‘무애도’의 근간은 ‘번뇌를 조복함’에도 머물지 않고 ‘번뇌를 조복하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번뇌를 조복하지 않음에 머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번뇌를 조복함에 머무는 사람은 이승(二乘)의 사람이다. 이것이 무애도(無礙道)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탐욕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탐욕을 끊어야 도(道)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무애도’의 올바른 이해는 탐욕이 청정해서 공하다고 보아서 생사에서 벗어나고, 반대로 탐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탐욕의 정체를 잘 알아서 중생을 구제하고, 그래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무애도’는 탐욕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자재한 것이다.

이러한 ‘무애도’의 정신은 탁нат한의 수행론과 현대의 명상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무애도’의 정신은 현실의 욕망에 매몰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한 저 피안의 세계만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다. 탁нат한의 수행론에서는 일상의 생활을 수행으로 승화시키고 있고, 현대의 명상법에서도 일상생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탁нат한의 수행법과 현대의 명상법은 ‘무애도’의 정신과 서로 연결

된다고 생각한다.

대승불교의 공(空)사상에 근거하면, ‘번뇌가 곧 보리’라는 주장이 성립된다. 이 주장에 근거해서 수행론을 제시한다면, 번뇌를 긍정하는 쪽도 부정되고, 번뇌와 보리를 구분하는 쪽도 부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론을 제시한 것이 천태지의의 ‘무애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마하지관』(『大正藏』 46권)

김부득 역주, 『대지관좌선법』, 운주사, 1995.

최기표 역주, 『역주 차제선문』, 불광출판사, 2010.

大野榮人, 『天台止觀成立史の研究』, 京都: 法藏館, 평성6.

新田雅章, 『天台實相論の研究』, 京都: 平樂寺書店, 소화 56.

安藤俊雄, 『天台學』, 京都: 平樂寺書店, 1969 2쇄.

田村芳朗, 新田雅章 著, 출판부 역, 『천태대사 - 그 생애와 사상-』, 영산법화사 출판부, 1997.

田村芳朗, 梅原猛 著, 이영자 옮김, 『천태법화의 사상』, 민족사, 1989.

關口眞大 著, 해명 옮김, 『천태지관의 연구』, 민족사, 2007.

교도지코 지음, 최기표 · 김승일 옮김, 『천태대사의 생애』, 시대의창, 2006.

광도, 「천태의 교관검수에 대한 소고」, 『법화학천태학연구』 창간호, 법화학천태학연구회, 2009.

김정희, 「천태지의의 불교수행론 연구」,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노채숙, 「천태의 破法開顯과 길장의 破邪顯正 비교」, 『법화학천태학연구』 창간호, 법화학천태학연구회, 2009.

서성우, 『법화경연구』, 운주사, 1997.

오지연, 「천태지관이란 무엇인가」, 연기사, 1999.

이기운, 「법화삼매의 사상체계연구」,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이병욱, 『천태사상연구』, 경서원, 2002 2쇄.

이병욱, 『천태사상』, 태학사, 2005.

이영자, 『법화·천태사상연구』, 동국대출판부, 2002.

이영자, 『천태불교학』, 해조음, 2006 재판.

지창규, 『천태사상론』, 법화학림 법화천태학연구소, 2008.

지혜경, 「천태지의의 연구사」, 『불교학리뷰』 5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2009.

차차석, 『법화사상론』, 운주사, 2005.

최기표, 「천태 점차지관의 수행체계 연구」,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최동순, 「선관사상의 변천과정 연구 -천태지관과 관련하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최은영, 「천태대사 지의의 불신관 연구」, 고려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혜명, 『마하지관의 이론과 실천』, 경서원, 2007.

[Abstract]

A Characteristic of T'ien-t'ai's Tui-chih of Kleśa

Lee, Byung-wook

In this paper, I will study T'ien-t'ai Chih-i's viewpoint and tui-chih (對治) of kleśa. In chapter 2, I will study the kind, arising aspect and yin-yüan (因緣) of kleśa. In *Mo-ho-chih-kuan* (摩訶止觀), Chih-i presents two kinds of kleśa. The first includes four kinds of kleśa : lobha (貪), pratigha (瞋), moha (癡) and chüeh-kuan (覺觀). The other includes chien-ssu (見思), ch'en-sha (塵沙), and wu-ming (無明). These three kinds of kleśa are eliminated by tz'u-ti san-kuan (次第三觀) according to the stages. Chien-ssu (見思) is eliminated by k'ung kuan (空觀), ch'en-sha (塵沙) is eliminated by chia-kuan (假觀), and wu-ming (無明) is eliminated by chung-kuan (中觀). This shows that Chih-i's viewpoint of kleśa is not clearly decided. Moreover, Chih-i states four types as the arising aspect of kleśa, whereas he states three kinds as the arising yin-yüan (因緣) of kleśa.

In chapter 3, I will study hīnayāna, mahāyāna, and t'ien-t'ai tsung's tui-chih (對治) of kleśa. Hīnayāna can not see k'ung (空) when hīnayāna eliminates kleśa, but mahāyāna can see k'ung when mahāyāna eliminates kleśa. This is the point of difference between hīnayāna and mahāyāna. Further, t'ien-t'ai tsung presents shih ch'eng kuan-fa (十乘觀法) as the method to eliminate kleśa by expanding mahāyāna's viewpoint.

In chapter 4, I will study kuan pu-k'o-ssu-i (觀不思議境), which is the first item among shih ch'eng kuan-fa (十乘觀法). In kuan pu-k'o-ssu-i (觀不思議境), Chih-i says wu ai tao (無礙道), which means free from the affirmation and negation about lobha (貪). An ascetic can see that lobha

is k'ung, because lobha is pure. Even if the ascetic admits lobha, he saves all living beings so that he can escape from life and death, because he can see the true character of lobha. In this paper, wu ai tao (無礙道) is emphasized. This is the characteristic of Chih-i's tui-chih (對治) of klesa.

Key Word: shih ch'eng kuan-fa(十乘觀法), wu ai tao(無礙道), tz'u-ti san-kuan(次第三觀), chien-ssu(見思), ch'en-sha(塵沙), wu-ming(無明).

이병욱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천태사상연구』(경서원 2000, 2002), 『고려시대의 불교사상』(혜안, 2002), 『에세이 불교철학』(운주사 2003, 2004), 『인도철학사』(운주사, 2004, 2008), 『한국불교사상의 전개』(집문당, 2010), 『한권으로 만나는 인도』(너울북, 2011)가 있으며, 관심 분야는 천태사상, 한국불교사상, 명상학, 인도학이다.